국별 리포트

코트디부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10.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7

Ⅳ. 국제신인도 11

Ⅴ. 종합의견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Ⅰ. 일반개황

면 적	322천 km^2	G D P	277억 달러 ('13)
인 구	22.4백만 명 ('13)	1 인 당 GDP	1,314 달러 ('13)
정 치 체 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CFA franc (CFA fr)
대 외 정 책	친서방 실리	환 율(달러당)	504.6

□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는 한반도의 1.4배 규모의 국토와 2,24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말리, 부르키나파소(북), 가나(동), 라이베리아, 기니(서)와 국경을 접함.

□ 2002년 내전 발발 이래 정국 불안이 지속되었으며 2007년 내전 종식을 선언했으나 2010년 대선 결과를 둘러싸고 유혈 충돌이 발생하며 내전이 재개되어 2011년 5월 종식됨.

□ 2011년 5월 출범한 와타라 정부는 국가개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제 부흥을 추진 중이며, 정국 불안이 해소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HIPC(고채무저소득국) 완료점에 도달함에 따라 대규모 공적채무 탕감이 진행 중임.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내전 종식 후 2012년 경제성장률은 9.5%로 호조

○ 2002년 내전 발발 후 2007년까지 매년 2%에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2008년부터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임. 특히 2009년에는 카카오 등 농산물 재배 호황, 국제유가 상승, 대외원조 등에 힘입어 3.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0년 11월 대선 이후 2011년 5월까지 이어진 정부군과 반군 간 유혈사태로 내전이 격화되고 국제사회가 무력 개입함에 따라 2011년 경제성장률은 -4.7%를 기록함.

○ 2012년에는 정치 안정을 되찾으면서 경기가 반등, 9.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도 정부지출 확대, 건설 호황, 코코아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8.8%의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4.8억 달러로 전년(2.9억 달러) 대비 1.7배를 기록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완만한 상승세

○ 2012년 중반 이후 디플레이션을 보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년 들어 상승세를 나타내며 4월달에는 전년동기 대비 4% 상승률로 최고치를 기록함.

- 세파프랑(CFA franc)* 환율이 유로화에 고정되어 있어 수입 인플레이션 영향은 낮음. 2013년 중 물가 상승은 전년도의 디플레이션에 따른 상대적인 효과로 보이며, 전 부문에 걸쳐 고르게 나타남.

* 서아프리카 8개국의 공동 통화로 1세파프랑은 655.957유로로 고정돼 있으며, 유로존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완만한 평가절하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공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 코트디부아르는 오랜 내전과 낮은 소득수준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해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전 종식 후 원조 공여 및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있으나 공공지출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적자 추세가 지속돼 2013년에도 GDP 대비 2.7%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12월 기준으로 해외 원조국들은 동국의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 NDP, 2012~15)을 지원하기 위해 86억 달러의 원조 제공을 약속하였으며, 원조 공여 외에도 중국이 제공하는 저리의 대출이 주요 재원이 될 것으로 보임.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f
경 제 성 장 률	3.7	2.4	-4.7	9.5	8.8
재 정 수 지 / G D P	-2.3	-5.7	-3.4	-2.8	-2.7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1.0	1.4	4.9	1.3	3.1

자료: EIU, IMF.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 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코트디부아르는 수출용 상품작물(cash crop) 재배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국가로, GDP의 약 27%를 농업 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의 약 50%가 농업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코코아(세계 1위, 2008년 130만 톤 생산으로 세계 총생산의 46% 차지)와 커피(세계 3위, 아프리카 1위)의 생산이 농업의 상당 부분을 차

지하고 있어 이들 작물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고, 기후와 작황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산업별 GDP 구성(2012년): 서비스업 51.5%, 농업 26.6%, 제조업 21.8%

○ 2012~13년 다수의 외국인 투자 방문단이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하고 있으나 산업 기반 및 기술 수준이 취약하여 농업 관련한 원재료의 가공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민간 부문은 주로 커피, 카카오, 캐슈넛과 같은 농산품과 천연고무, 팜유 등 1차 원재료의 가공에 한정됨.

□ 열악한 전력, 도로 등 인프라로 인해 취약한 성장기반

○ 과중한 대외채무로 인한 투자여력 부족 및 오랜 내전으로 인해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전력수급 부문에서 185개국 가운데 153위를 기록하는 등 원활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로 포장률은 2007년 기준 7.9%에 불과함.

나. 성장 잠재력

□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의 경제적 중심지

○ 코트디부아르는 2천만 명 이상의 인구 및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의 경제적 중심지였으나, 그간 쿠데타와 내전 등의 정세불안으로 1인당 GDP 1,000달러 수준에서 성장이 정체되었음.

○ 최근 정치적 안정을 되찾으며 와타라 대통령이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의장으로 임명되고,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본부가 경제수도인 아비장으로 복귀할 예정인 등 역내 경제적 리더십을 다시 확보해나갈 것으로 기대됨.

- 원유(1억 배럴), 천연가스(283억 입방미터), 금(3톤), 니켈(4.4억 톤), 망간

(35백만 톤), 다이아몬드(연 30만 캐럿 이상 생산), 철광석(15억 톤) 등 매장량은 많지 않으나 다양한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한 국가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 관광지로서의 잠재력 풍부

○ 코트디부아르는 대서양과 접하는 약 520km의 청정해안과 열대성 기후를 갖춰 연중 휴양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을 보유하여 종합 관광지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또 과거 프랑스 식민지로 유럽 관광객의 방문 수요가 높음.

- 아비장은 현대식 도시계획, 고층빌딩, 녹지 등의 조화로 서부 아프리카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꼽히며 '아프리카의 작은 파리'로 불림.

다. 정책성과

□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성장 추진

○ 2012년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지난 수 년 간의 내전으로 피폐화된 국가경제를 회복시키고 2020년 신흥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하에 4개년 국가개발계획(PND 2012-15)을 수립,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PND는 농업(12건), 보건 및 에이즈 퇴치(16건), 도로 인프라(12건), 관광(4건) 등 총 114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60건을 민관협력 프로젝트(PPP)로 진행할 예정임.

○ 중국의 Sinohydro사가 수브레 수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였으며 Louis Dreyfus 그룹이 쌀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의사를 표명함. 또 서아프리카개발은행(BOAD)이 코트디부아르-부르키나파소 간 도로공사에 1억 2,4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아프리카 경제개발 아랍은행(BADEA)이 북부고속도로 공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연내 완공 예정인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 2015년 내 서민주택 6만 호 공급 계획을 진행 중으로, 정부는 연내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46개 부동산 개발업자와 256개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분양 신청을 받고 있음. 또 아비장의 교통정체 해결을 위해 도시경전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농업 생산량 증대

○ 코트디부아르는 농업 비중이 높으나 코코아, 커피, 캐슈넛 등 수출용 작물 위주로 경작이 이루어져 식량 자급률이 낮음. 이에 따라 정부는 쌀 자급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농산물 생산 증대를 추진하고 있음.

- 2012년 쌀 생산량은 98만 4천 톤으로 목표 대비 91% 수준을 달성하였음.

- 농업부는 2013년 1월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해 종자 보급, 비료 지원 및 기술지도 등을 기본 틀로 하는 농업증산 및 유통촉진 프로젝트(PROPACOM)를 개시함.

○ 쌀 가공 및 유통 전문 기업인 Louis Dreyfus 그룹은 2013년 1월 아비장을 방문하고 코트디부아르에 약 6천만 달러의 투자를 결정함. 이는 토지 개간을 통한 농지 확보, 가공시설 및 유통망 확보에 충당될 것으로 보임.

3. 대외거래

□ 자본재 등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확대

○ 코트디부아르는 코코아, 커피, 캐슈넛 등의 상품작물 수출에 힘입어 매년 30~40억 달러 수준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함.

○ 경기 회복과 인프라 투자 증대로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감소하는 한편, 수입 증가와 함께 물류비용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는 증가함에 따라 2011년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함. 2013년에도 수입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경상수지 적자 폭이 확대돼 GDP 대비 7.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IMF의 양허성 차관 지원

○ IMF는 내전 종식 후 코트디부아르의 국가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7월 긴급차관(Rapid Credit Facility*) 1.3억 달러, 확장차관(Extended Credit Facility*, 2011-14) 6억 달러를 지원하였음.

* RCF는 긴급한 유동성 문제에 대해 조건을 달지 않고 지급하며, ECF는 국제수지 적자 보전을 목적으로 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e	2013f
경 상 수 지	1,618	465	-127	-266	-623
경상수지/GDP	7.0	2.0	-0.5	-1.1	-2.2
상 품 수 지	4,257	3,622	3,548	3,556	3,101
수 출	11,168	11,410	11,735	12,529	12,960
수 입	-6,911	-7,789	-8,187	-8,973	-9,859
외 환 보 유 액	2,675	3,195	4,205	3,378	3,453
총 외 채 잔 액	19,402	17,644	17,232	13,001	12,903
총외채잔액/GDP	86.2	76.7	71.5	52.6	45.4
D. S. R.	17.5	17.6	29.9	12.1	15.3

자료: IMF, EIU 및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오랜 독재와 쿠데타, 내전으로 정치적 혼란 지속

○ 1960년 코트디부아르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해 실시된 첫 대선에서 집권한 코트디부아르민주당(PDCI)은 PDCI를 제외한 모든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함. 초대 대통령인 우푸에부아니는 병으로 사망한 1993년까지 34

년간 집권하였으며, 1995년 최초로 다당제 하에서 실시된 대선에서도 PDCI가 승리함.

○ 1999년 12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대통령이 추방됐으며 2000년 실시된 대선에서 아이보리인민전선(FPI)의 바그보 후보가 당선되며 40년 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2002년 9월 약 7백 명의 강제퇴출 대상 군인들이 아비장에서 폭동을 일으켰으며, 이는 곧 남부를 장악한 정부군과 북부를 장악한 반군간의 내전으로 발전함.

- 양측은 프랑스의 주선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유혈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2004년 5월 UN 코트디부아르 평화유지군(ONUCI)이 출범하였으며, 2007년 7월 아프리카 6개국 국가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행사를 개최하고 전쟁 종료를 선언함.

○ 내전의 공식적인 종료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토는 남북으로 분열된 채 남부는 정부군, 북부는 신체제 반군, 서부는 1만 명 병력의 친정부 민병대가 장악함. 2010년 11월 대선 결과 공화주의자연합(RDR)의 와타라 후보가 당선됐으나 바그보 대통령이 이에 불복하면서 유혈 충돌이 발생하고 내전이 재개됨.

- 2011년 3월, 유엔 안보리는 와타라를 정당한 대통령 당선자로 인정하고 ONUCI가 중화기를 파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와타라 측 공화국군이 바그보 대통령과 측근들을 체포하고 바그보 지지 지역을 장악하며 5월 내전이 종식됨.

□ 2011년 와타라 정부 출범 후 정치안정 회복세이나 야당과 갈등 지속

○ 2011년 5월 와타라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며 동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RDR과 연립여당 일원인 PDCI가 다수당 위치를 확보함. 와타라 대통령은 2012년 11월 내각 개편을 통해 자신의 오랜 측근들을 다수 기용한 연립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의회에서 안정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바그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FPI는 2011년 총선을 보이콧하였으며 2013년 9월, 파리에서 시위를 통해 바그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권의 모든 수감자들을 석방하도록 요구하고 그간 진행해오던 정부와의 대

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야당의 제도권 정치 참여는 요원한 상황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바그보 지지 세력의 무력행동 지속

○ 바그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무장세력이 2011년 12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선거사무소에 로켓 공격을 감행하여 선거운동원 5명이 사망하였음. 또 2012년에는 서부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UNOCI군 7명이 사망하고, 8월에는 현지 군부대 및 경찰 초소를 총 7차례 피습하여 수십 명이 사망하는 등 유혈 충돌이 계속되고 있음.

- 치안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유엔안보리는 UNOCI의 임무 연장 결의안을 채택하여 내전 종식 후에도 UNOCI 군 병력 및 경찰 1만여 명이 주둔하고 있음.

□ 열악한 생활환경

○ 2012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서 코트디부아르는 총 187개국 중 168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음.

- 보건 및 의료 시설 부족으로 평균 기대수명이 56세에 불과하고, 영아사망률이 1,000명당 123명에 이르며 교육 수준도 낮아 성인의 평균 학교교육 이수기간이 4.2년, 식자율이 56% 수준임.

- 인구의 약 39%가 심각한 빈곤(severe poverty) 상태에 있으며 약 24%가 극빈선(PPP, 1일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

□ 종교적 갈등 발생 가능성 잠재

○ 코트디부아르의 종교는 이슬람교(39%)와 기독교(33%)로 양분되어 있으며, 북부 지역 및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대부분은 이슬람 신자이고 남부 지역은 주로 기독교 신자로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 갈등의식이 잠재해 있음. 이러한 지역적, 종교적 분열은 내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며 인접한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국민의 대부분이 이슬람

교)와의 갈등도 상존함.

- 초대 우푸에부아니 대통령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는 바, 카톨릭은 전통적으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며 우푸에부아니 대통령이 본인의 고향이자 행정수도인 야무수크로에 건립한 대성당은 세계 최대 규모임.

3. 국제관계

□ 프랑스와의 우호관계를 넘어서 실리적 국제관계 다변화 추진

○ 전통적으로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프랑스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2002년 내전 당시 프랑스의 마르쿠시스에서 평화협상을 개최한 바 있음. 또 프랑스는 아비장과 상페드로의 주요 항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아비장 제2 컨테이너 터미널 최종 사업자로 프랑스 Bollore 그룹이 결정되는 등 경제적으로도 영향력이 높음.

○ 와타라 대통령은 프랑스 중심의 국제관계를 다변화하고 국가개발계획 실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그간 개발이 제한된 농업, 광업, 에너지 부문의 성장잠재력이 높이 평가됨에 따라 유럽, 북미, 아시아 국가들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은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금융을 제공하면서 코트디부아르의 가장 주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부상하였음.

□ 주변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

○ 2013년 상반기 중 기니만 해적 습격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해상 치안 불안으로 물류 비용이 상승하고 무역활동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대한 지역적 협력 대응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경 분쟁과 효율적인 대응조직 부재로 뚜렷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상황임.

○ 바그보 추종자들이 이웃한 가나와 라이베리아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함에 따라 와타라 정부는 가나와 라이베리아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2012년 HIPC 완료점 도달로 대규모 외채 탕감 진행

○ 코트디부아르는 2009년 3월 HIPC 이니셔티브[1] 대상국이 되었으며, 2012년 6월 완료점에 도달함에 따라 부채 탕감이 확정되었음. 이에 따라 HIPC 이니셔티브 31억 달러, MDRI[2] 13억 달러 및 파리클럽 공적채무 탕감 33억 달러 등 총 77억 달러 규모의 외채 탕감이 합의됨.

- 2012년 프랑스 6.5억 유로, 2013년 미국 2.1억 달러, 영국 5천만 달러, 일본 2.2억 달러의 채무 탕감 협약을 채결하는 등 순차적으로 채권국들과 채무 탕감을 진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코트디부아르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1년 말 71.5%에서 2012년 말 52.6%로 감소하였으며 DSR도 29.9%에서 12.1%로 크게 감소하였음.

□ IMF 및 세계은행 연체현황: 없음 (2013년 6월 말 기준)

□ OECD 회원국 ECA의 대 코트디부아르 지원현황(OECD, 2013년 6월 말 기준)

○ 단기: 총 지원잔액 4,370만 달러(연체금액 없음)

○ 중장기: 총 지원잔액 2억 9,610만 달러(연체금액 2억 3,850만 달러)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1) 고채무저소득국 채무구제(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HIPC Initiative)는 저소득국의 과중한 외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적 채무완화 방식(세계은행, IMF의 양허성차관과 파리클럽에 의한 리스케줄링)보다 외채경감 폭이 확대됨(67%→ 80%).

2) 다자국제금융기구 채무구제(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는 세계은행의 IDA와 IMF, AfDB, IADB 등 4개의 기구가 HIPC Initiative상의 완료점에 도달한 국가에게 채무잔액을 전액 탕감해주는 채무구제의 최종단계임.

○ OECD는 2012년 10월 개최된 CRE(국가위험평가 전문가)회의에서 코트디부아르의 국가위험도 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최하 등급인 7등급으로 평가하였음.

○ 그 외 주요 신용평가기관은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있음.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EXIM: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인 단기 인수 가능

○ 영국 ECGD: 인수불가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79. 9. 14 (북한과는 1969. 9. 20)

□ **교역규모**

○ 우리나라와 코트디부아르 간 2012년 교역규모는 1억 2,238만 달러 규모로 교역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합성수지, 어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동제품임.

□ **해외직접투자(2013년 6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5건, 6만 달러**

<표 3> **한·코트디부아르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 출	94,140	92,847	120,655	자동차, 합성수지, 어류
수 입	401	2,530	1,722	동제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코트디부아르는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의 경제적 중심지였으나 오랜 내전으로 성장이 정체되었다가 2011년 5월 내전이 종식된 후 적극적으로 성장을 꾀하고 있음.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복지 등 각 부문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입도 증가하는 추세로 정치적 안정 및 치안 유지가 향후 경제발전의 관건임.

□ 코코아, 커피, 캐슈넛 등 상품작물 수출로 매년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고 물류비용이 증가하면서 2011년 이후 경상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향후에도 이러한 국제수지 구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와타라 대통령은 2012년 11월 내각 개편을 통해 자신의 오랜 측근들을 기용하였으며, 연립여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연립여당의 연대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바그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무장 세력의 활동에 따른 위협 해소가 정치 안정에 핵심적인 요소임.

□ 2012년 HIPC 완료점에 도달함에 따라 대규모 외채 탕감이 확정되었으며 2011년 말 기준 GDP 대비 71.5%를 기록한 외채잔액 비중은 2012년말 기준 52.6%로 축소됨. OECD 국가신용등급은 최하 등급인 7등급으로, 외채 상환능력은 미흡한 수준이나 총 외채 중 양허성채무의 비중이 51%(2011년)로 높은 편이고 추가 외채탕감이 예정돼있어 단기적으로 외채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조사역 이주은(☎02-3779-5727)
E-mail : june@koreaexim.go.kr